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축권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제1783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8월 16일 (음력 7월 4일) 목요일

■광주·전남 10년간 암사망 원인 살펴보니

직장·결장암 늘고 있다

식생활 및 생활 습관·환경변화에 따라 암 원인별 사망자 수도 크게 변하고 있다.지난 2005년 광주·전남에서 암(癌)으로 숨진 사람 중 ▲전립선암 ▲결장·직장 및 항문암 ▲방광암▲폐암 ▲췌장암 환자 등이 10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백혈병 ▲위암 ▲간암 ▲식도암 ▲후두암 등 환자는 줄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자궁암도 4배 급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암과 발병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간암 등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검진 확산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구식 식생활 확산과 생활습관의 변화, 환경 오염 등과 관련이 깊은 부인암과 전립선암, 직장암, 항문암 등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의 주요 암 질환인 자궁·난소·유방암 사망자도 1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1995년과 2005년 암 사망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사망자는 2005년 광주 22명·전남 66명으로, 95년 광주 11명·전남 10명에 비해 각각 100%와 560% 급증했다. 결장· 직장 및 항문암 사망자도 2005년 광주 156명·전남 310명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200%와 176% 늘었다.

방광암 사망자 역시 광주(11명→31명)·전남(32명→55명) 지역 모두 10년 전에 비해 각각 181%,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 또한 광주와 전남이 각각 70%, 52% 늘었으며, 췌장암도 28.3%와 57.7% 증가했다.

반면,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 사망자는 2005년 광주 26명·전남 74명으로, 95년 광주 31명·전남 86명보다 각각 16%, 14% 소폭 줄었다. 위암은 2005년 광주가 250명·전남이 69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6%와 35.2%가 줄었으며, 후두암 역시 광주·전남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12.5%, 45% 감소했다.

하지만, 간암은 전남에서 2005년 768명으로 95년 880명보다 12% 줄었고, 광주에선 2005년 291명으로 10년 전 234명보다 24%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적지만, 여성 질환인 자궁·난소·유방암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자궁암은 95년 광주와 전남지역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2005년에는 광주 25명, 전남 50명으로 각각 150%, 400%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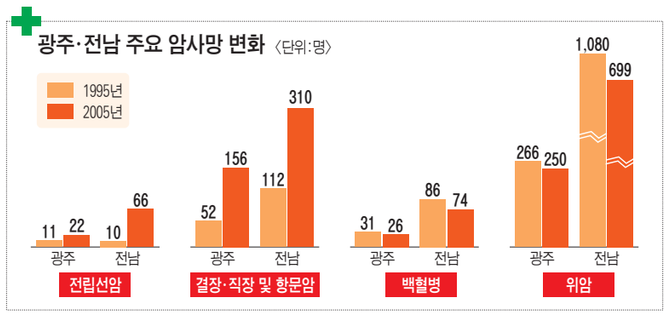
난소암은 광주가 95년 11명에서 2005년 18명(63%) 증가했으며, 전남은 13명에서 44명으로 무려 238%나 늘었다. 유방암도 10년 전에 비해 광주 12.9%, 전남 61.6% 증가했다.

한편 피부암의 경우 광주가 95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지만, 2005년에는 7명이 발생했으며, 전남은 95년 3명에서 2005년 10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2005년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암은 광주의 경우 ▲기관지·폐암(344명) ▲간암 및 담관암(291명) ▲위암(250명)의 순이었으며, 전남지역 역시 ▲기관지·폐암(967명) ▲간암 및 담관암(768명) ▲위암(699명) 등으로 같은 현상을 보였다.

광주·전남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5년 5천761명으로, 95년 5천52명 보다 10년 사이 14%가 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극기 휘날리며 운전하세요

제62주년 광복절인 15일 '바르게살기운동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이동수) 회원 50여명이 광주역 광장에서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태극기 1천여개를 나눠준 행사를 마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논의"

盧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정상회담 무리한 욕심 안 부릴 것"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적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목표에 대해 "무엇보다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공동번영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 과거 4대 남북합의들을 열거한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오늘 6자회담 비핵화 실무회의

연내 불능화 협의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의 2단계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16일부터 이틀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여우이빈관(友誼賓館)에서 열린다.

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 불능화의 기술적인 방법과 북한이 신고할 핵프로그램 목록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연내 불능화 및 신고 단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두 조치의 선후 관계 및 대강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까지 받을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과 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과 신고대상 핵 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연내 불능화 및 신고 조치를 이행한다는 목표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장), 베르데니코프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 스다 아키오(須田明夫) 일본 외무성 북핵담당대사 등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우뚝 백년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주)조이트레블
234-3222
299,000
429,000
449,000
599,000
370,000
광주에서 출발하는 계림(桂林)직항
우리연휴, 단 두 번의 출발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桂林山水甲天下
6대의 왕복기 대절(4일)